

〈중학생 부문 우수 작품〉



진짜부자인 워런버핏과 돈의 노예인 해티그린

백마중학교 1학년

허환

“한이 왔구나.”

내가 은행에 가면 아저씨와 누나들이 반갑게 맞아주신다. 나는 일주일에 한번은 꼭 은행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을 정리하고 그동안 모아 놓은 돈도 저금한다. 그리고 펀드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확인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은 이번에 만든 만능청약통장까지 모두 네 개다. 저축예금통장, 중국펀드통장, 만능청약통장 그리고 야예를 후원하는 후원통장 이렇게 가지고 있다.

먼저 은행에 가면 예금통장을 정리하고, 저축예금통장과 후원통장에 그동안 모아 놓은 돈을 저금한다. 펀드가 내려 갔는지 올라갔는지도 확인한다. 펀드가 하락해서 손해를 볼 때나 이익을 볼 때나 아저씨께서는 세계경제상황이나 국내경제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나고 나에게 물어보신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상식을 동원해서 앞일을 전망하면 아저씨는 일주일동안 경제공부 많이 했구나 하시면서 칭찬해주시신다. 우리아파트 단지의 은행에서 나는 경제신동이다. 아저씨는 커서 꼭 훌륭한 경제인이 되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재목이 되라고 하신다.

내가 이렇게 경제에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된 것은 부모님들의 남다른 경제교육 때문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돈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 나를 보는 주위의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돈을 밝힌다고 좋지 않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우리부모님께서는 7살 때부터 용돈을 주시고, 통장도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집안일을 하면 힘든 정도에 따라 보너스를 주셨다. 그렇게 받은 돈이나 용돈을 절약하여 만원이 되면 통장에 넣었다. 돈이 차곡차곡 모였고, 그 돈으



로 한 달에 오만 원씩 넣는 적립식 펀드를 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펀드에 기입할 때도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은행에 가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기도 하고, 신문이나 인터넷정보를 이용하여 기입했다. 이렇게 돈 관리를 하는 나를 보고 돈에 너무 관심을 가진다고 안 좋게 보는 분도 계시다. 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돈과 부의 중요성을 어려서부터 가르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돈은 내가 벌테니 너는 공부만 하라는 식으로 아이들이 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막으신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작은 돈을 관리하지 못한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큰돈을 관리하지 못한다.

친구들을 보면 청소할 때 십 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 작은 돈의 소중함을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친구들 중 대부분이 은행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다.

〈중학생 부문 우수 작품〉



진짜부자인 워런버핏과 돈의 노예인 해티그린

백마중학교 1학년

허환

얼마 전 '워런버핏처럼 부자되고 빙기문처럼 성공하라.'란 책을 읽었는데 워런버핏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경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고 하셨다. 그것은 정말 맞는 말이다. 나는 용돈을 모으고, 집안일을 돋거나, 영어학원에서 시험을 잘 보면 주는 상금과 글짓기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모아 에티오피아의 '아예'에게 한 달에 이만 원씩 후원해 주고 있다. 목돈이 생기면 아예에게 선물을 보낸다. 이만 원은 나에게 작은 돈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용돈을 절약하면 모을 수 있는 돈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돈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돈이 없어 학교도 가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 먹지도 못하는 아예를 도와주지 못했을 것이다. 아예는 내가 후원해주는 돈으로 굶지 않게 되었다. 아예의 편지와 사진을 받으며 돈보다 값진 행복을 선물받는다.

워런버핏도 자신을 위해서는 작은 돈도 아끼지만 불쌍한 사람을 도우는 일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놓았다.

이처럼 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다. 돈의 노예가 된 '해티그린'은 남다른 금융지식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하지만 돈을 쓸 줄 모르고 아끼기만 하여 구두쇠 마녀로 불린다. 해티그린은 가스비가 아까워 오트밀로 식사를 하고, 아들의 병원비가 아까워 집에 데려와 치료를 하다 다리를 잃게 만들기도 했다. 자신도 150달러의 수술비가 아까워 탈장수술을 하지 않고 평생을 살았다고 한다. 그녀가 죽고 나서 남긴 재산이 요즘의 가치로 환산하면 15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해티그린은 불행한 말년을 보냈고, 이웃들은 물론

자식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지 못했다. 워런버핏과 비교하면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현명한지 알 수 있다.

나도 주식투자를 하여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정확한 지식 없이 투자하기 힘들다. 작년엔 사이드카가 수십 차례 발동할 정도로 불안정했다. 언젠가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 나는 경제신문도 꼼꼼하게 보고, 중요한 기사는 스크랩을 해서 내가 생각하는 의견을 적어 놓는다. 경제뉴스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나는 워런버핏처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기 위해 경제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 성공하는 투자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작은 돈도 아끼서 저금통장에 돈도 늘릴 것이다. 어른이 되면 내가 모은 돈과 지식을 가지고 투자를 하여 돈도 벌 것이다. 내가 가난하다면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부자가 된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마음껏 돌볼 수 있다. 우리속담에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쓴다.'란 말이 있는데 나는 그 말을 '정승처럼 벌어 정승처럼 쓸 것이다.'로 바꾸고 싶다.

① ②
〈중학생 부문 우수 작품〉



진짜부자인 워런버핏과 돈의 노예인 해티그린

백마중학교 1학년

허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워런버핏처럼 정직하고 현명하게 돈을 벌어 정말 써야 할 곳에 돈을 쓸 것이다. 지금은 아예 하나만 도와주지만 내가 어른이 되어 부자가 된다면 아예같이 돈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도 만들어 줄 것이다.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아이들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도록 내 재산 모두를 내놓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는 우리 부모님처럼 어려서부터 경제교육을 시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것이다.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몇 배값진 경험을 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워런버핏처럼 존경받는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랑도 될 수 있고 행복도 될 수 있다. 나는 사랑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런 돈을 벌고 싶다. 해티그린처럼 돈의 노예가 아닌 워런버핏처럼 진짜 진정한 부자가 될 것이다.